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전남 만든다

청년 인구 5년 만에 29%로 줄어 마을 사라지고 고향 없어질수도
시·군에 '인구청년이민국' 신설...청년·출산·귀농어촌 지원 나서

고흥의 청년(18~45세) 인구는 1만336명(2023년 9월 기준)이다. 전체 인구(6만 1328명) 중 65세 이상이 2만 6991명(44.0%)인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5년 전인 2018년만 해도 20.9%(1만3751명)였지만 2020년 18.9%(1만 2092명)로 내려왔을 뒤, 지난해 17.3%(1만 716명)로 떨어졌고 올해는 16.9%로 줄었다. 내년엔 1만 명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고흥만 그런 게 아니다. 전남 22개 시·군이 비슷하다. 5년 전 60만 8960명(32.3%)이던 전남 청년들은 5년 만에 52만 2568명(28.9%)로 내려왔다.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심화로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눈을 돌리고 발길을 붙들어야 지방 공멸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 올해 전남도가 추진한 사업만 45개. 한 해 예산만 4299억 4400만원이다. 올해는 국비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오지만 마을이 사라지고 고향이 없어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절박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무관하지 않다. 전남 인구 180만명(9월 기준 180만 7295명)대가 붕괴하고 청년 인구도 50만 명 밑으로 내려앉을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전남 부서를 신설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출입기자들과의 송년 만찬 자리에서 이 같은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입장을 밝혔다. 당장, 한 달 안에 진행될 내년 정기 인사 때

기존 인구청년정책관(4급)을 3급으로 올리고 인구정책·청년지원·귀농어촌지원·출산지원·외국인지원팀 등으로 꾸려진 인구청년정책관실을 2~3개 과로 확대해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관리하다가 7월 정식 조직 개편을 거쳐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오래 전부터 이민국 추진을 준비해왔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도 이민국 설립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은 인구 감소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외국인력 유지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광역지자체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에는 인구청년이민과를 신설하고,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3만 3042명이던 전남지역 등록 외국인 이 3만 4638명(2019년), 3만 8988명(2022년)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4만 4021명으로 늘어난 상황도 무관하지 않다.

이 때문인지 김 지사는 당시 연설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정주 대상으로 보고, 단순보다는 성실 노동자에게 가족 동반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무안에서 열린 도민과 대화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육탄 저지'에 맞서 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선 도 간부 공무원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가로수도 성탄·연말 분위기 14일 오후 광주 동구 총창로 17에서 광주천변으로 이어지는 가로수에 내걸린 전구들이 불을 밝히며 성탄과 연말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주말 기온 영하권 '뚝'... 비가 눈으로 내려

17일 대설특보 예보
건강·시설관리 '주의'

주말에 광주·전남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까지 광주·전남에 10~60mm의 비가 내리다가, 주말인 16일부터 기온이 떨어져 점차 눈으로 바뀌겠다"고 14일 밝혔다. 눈은 휴일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7일 전후로 광주·전남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15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를 유지하다가 16일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기온 2~6도로 떨어지면서 한파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보했다.

17일에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7~영하 3도, 낮 최고기온 영하 2~2도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16일부터 중국 북부지방에서

독감인자... 코로나인자 ... '혼란의 계절' ▶6면

복스 - '포스터로 본 일제강점기 전체사' ▶14·15면

광주FC, 선수 이탈 막고 '빅클럽' 가나 ▶18면

확장하는 대륙고기업의 영향을 받아 추워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체온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눈과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군, 판정기준 완화

정신질환 판정기준은 강화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

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바이탈뷰티

명작수천
바이탈뷰티
Revitalizing Ginsengberry and Deer Velvet Amrit...
25g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